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사라질 위기



▲ 100원 동전 앞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사진=연합뉴스

1983년부터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서 화폐 도안 전체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11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700만원 정도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하되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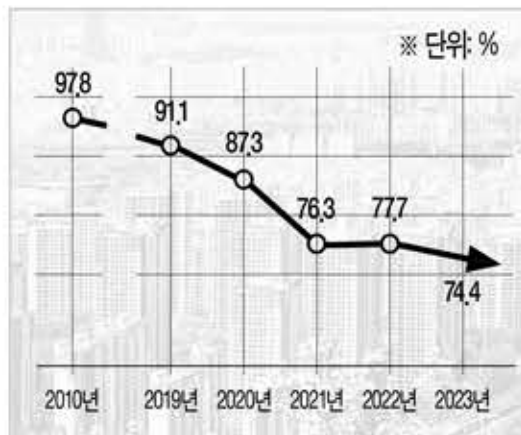
고 장우성 화백은 2001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총무공 영정(1952년 작)은 1973년 첫 표준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급감 ... 서민 주거 고통 증가

경기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줄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 6억원 이하에 사고팔린 아파트 비중이 70% 중반을 밑돌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살이가 버거운 이들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은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8만837건 중 6억원 이하 거래가 6만173건으로 74.4%에 그쳤다고 밝혔다. 매년 1~9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다.

경기도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10년 전후



▲ 경기지역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90%대 후반을 유지하다 2017년 94.3%로 꺾이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2019년(91.1%)까지만 해도 90%를 웃돈 이 비중은 2020년 87.3%, 2021년 76.3%로 급감하며 연거푸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77.7%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중저가 아파트의 빠른 감소는 주거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주거 대안으로 찾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마저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지면 무주택자들은 비싼 주거비를 감수하거나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 서민들의 주거 고통이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인 10명중 4명 육아휴직 '그림의 떡'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정책이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직장인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규정된 제도들조차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사진=shutterstock

9일 '매일경제'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

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Single	Couple
Income & Resources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